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46-9766 x 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Bishop and 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y
E-mail: achristo@umcnic.org

Korean Translation: Monday Morning Video: June 22, 2020

백인의 특권. 여러분은 불편한 얘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백인의 특권이란 용어는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더 많이 거론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백인의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이 용어에 대하여 저처럼 씨름했던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이라니 , 무슨 소립니까?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것이고요. 여러분중에는 저처럼 아니면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속에서 사용된 특권에 대해서 마음에 맺혀있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집밖으로 나가 일을 한다는 것이 무척 부끄럽게 여겨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어머니가 일나가지 못하시도록 설득하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밖으로 일을 다니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음식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살 돈이 생기는 것을 저는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권이라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난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백인이었기때문에 어머니께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백인이라는 부츠의 가죽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선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환경은 고등학교를 일등으로 졸업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제가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또한 가리라고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정말로, 심지어 저는 9월에 입학하는 대학을 7월까지도 SAT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학원서를 내자 마자 허락이 빨리 났습니다. 지금 되돌아 보면 제가 백인이 (white boots) 아니었다면 입학 허가가 그렇게 쉽게 났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집안의 성차별 문화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집밖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어머니가 직장을 갖게 된 것이 가장 잘 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자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장애물이었지만 제가 저의 길을 걷기 시작 했을 때에 최소한 저는 백인이란 부츠 “white boots” 를 신고 시작하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대학등록금 신청서류 작성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곳에서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대학 시작 등록금을 감당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백인이란 “화이트 부츠”를 신지 않았다면 제가 결코 그 많은 일할 기회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나 생각해봅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 오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매일 만성적이고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가정폭력, 심한 정신 질환 , 또는 중독 과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란 상황에 던져졌다면, 만약 아직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특권”을 받는 다는 것은 어려울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백인이란 “화이트 부츠”마저 신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몇년후 제가 신학교 다닐때, 이모가 방문 하셔서 저에게 “어떻게 너의 인생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알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문을 하나씩 열고 그 문들을 통과하였어요. 문을 통과 하면 너무 좋았고요 문이 안 열리면 그 다음 문을 시도하였습니다. 내가 시도한 대부분의 문들이 열렸었고 그 문들이 어디로 인도 할 것인지 항상 알지 못했고 종종 힘들기도 하였지만 늘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중 많은 문들은 만약 제가 백인이란 부츠“white boots” 를 신고 있지 않았다면 문이 열리기는 커녕 제 면전에서 쾅 하고 닫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기까지 (어쩌면 그후에도) 경제적인 도움이나 어떤 후원없이 걸어왔지만 그 모든 발자국마다 이 특권을 누리며 고군분투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것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러나 산을 오를 때 백인이란 부츠를 “white boots”을 신고 오른 것이었습니다.

백인 특권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우리가 이룩한 것이 노력없이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인이란 부츠를 “white boots” 를 착용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오늘날 많은 유색인종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해야합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백인이란 부츠“white boots”를 보고 종종 우리에게 필요에 기회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백인 특권은 살아있으며 “믿어 주는 힘” 이 존재합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동네에서 밤에 산책을 할 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백인이란 부츠는 “white boots” 종종 더 쉽게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라는 원 뜻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넘어서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백인이란 부츠를 신은 사람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지고 종종 우리들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서버브의 주택입니까? 세계 2차 대전 후에 지어진 집이라면 교육학자금과 함께 지원된 G.I Bill (제대군인 원호법)의 대출로 건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참전용사가 백인이란 부츠 “white boots” 를 신고 있었다면요. 하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참전용사들에게는 같은 혜택이 제도적으로 거부되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백인이란 부츠“white boots” 를 신고 있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백인이란 부츠“white boots” 를 신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저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해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백인이란 부츠“white boots” 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문을 여시겠습니까?